

임실N치즈축제 발 빠른 준비 돌입

축제제전위 임시총회 개최... 2026 임실N치즈축제 10월 8~11일 개최 확정

임실군이 올해 임실N치즈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된 가운데, 내년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발 빠르게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임실N치즈축제 제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홀에서 제전위원 및 대행사, 정책지원연구 용역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임실N치즈축제 준비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마을, 임실을 일원에서 개최된 2025 임실N치즈축제의 종합 성과와 개선점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특히, 프로그램 운영, 관광객 동선 관리, 지역 상권 연계 등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분석하며 향후 축제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또한, 정책지원연구 용역사로부터 지역 주민 참여와 관여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 결과에 대해 보고받는 시간도 갖는 등 축제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논의도 진행됐다.

제전위원회는 이날 의견 수렴을 거쳐 2026 임실N치즈축제를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개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임실N치즈축제 제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홀에서 제전위원 및 대행사, 정책지원연구 용역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임실N치즈축제 준비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군은 내년 축제 일정이 조기에 확정된 만큼, 대행사 선정 등 세부 실행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2026 임실N치즈축제를 보다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축제로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올해 임실 방문의 해에 맞춰 추석 연휴 5일간 치러진, 임실N치즈축제는 역대 최대인 61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대한민국 3대 최우수 문화관광축제의 위상을 재입증했다.

축제 기간에는 유제품 20% 할인 판매, 저지중 숙성치즈·무가당 요거트 홍보, 12개 읍면 향토 음식 판매, 지역

한우고기 판매, 청정 농특산물 판매 등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총 30억 8천만원의 직접 매출을 기록했다.

심 민 군수는 "임실N치즈축제는 단순한 이벤트성 축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치즈의 원조, 5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지닌 임실N치즈를 테마로 한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축제"라며 "내년에도 많은 분들을 임실만의 매력과 특별함을 선사할 수 있도록 더욱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전충영 기자

순창군, 노인일자리사업 성과 공유

순창군은 지난달 28일 노인회관 3층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성과 공유 간담회'를 열고 한 해 동안 추진된 사업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순창석 순창군의회 의장, 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본부장,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등 130여 명이 참석

해 자리를 밝혔다.

행사에서는 특히 시니어자원순환단과 폐건전지 수거 활성화 사업단 어르신들이 직접 마련한 수익금 1,259만 8,652원과 갑티슈 684개, 건전지 1,640개를 기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돼 현장을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다.

간담회에서는 환경 분야 노인일자리

의 주요 성과가 공유됐다.

시니어자원순환단은 지난 1년간 폐페트병 263만 8,083개(3만1,657kg)를 수거·선별·세척·압축해 재활용 자원으로 재가공했다.

폐건전지 수거 활성화 사업단 또한 1만 6,400개의 폐건전지를 수거하며 지역 환경 개선과 탄소 저감에 기여했다.

기탁식은 간담회 직후 진행됐으며, 기탁된 물품과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돼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제18기 농업농촌혁신대학 졸업식 개최

순창군이 지난달 28일 농업기술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제18기 농업농촌혁신대학 졸업식을 열고, 9개월간의 교육 과정을 성실히 마친 교육생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했다.

농업농촌혁신대학은 현장 중심 실습과 전문 컨설팅을 결합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돈 버는 농업'을 실현할 핵심 농업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과정은 '블루베리 전문과정'으



로 구성돼 총 23회, 102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43명이 졸업 요건을 충족해 졸업장을 받았다.

총 55명의 교육생이 등록해 참여했으며, 소득개발시험료 블루베리 과잉

을 활용한 실습과 현장 전문가 초빙 강연 등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허진욱 학생이 농촌진흥청장상을, 8명의 교육생이 순창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수상자 전원이 100% 출석을 기록하며 지역 농업 발전에 대한 높은 열의를 보였다.

교육생들은 블루베리 재배기술, 유기물 토양관리, 병해충 관리, 수확 후 품질관리, SNS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받았으며, 제주도·영동·곡성 등 주요 블루베리 생산지를 견학해 최신 재배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노인복지관 청춘제 성료

공연 발표회·작품 전시·먹거리·체험 부스어우러진 문화축제 열려

남원시는 지난달 28일 남원시 노인복지관에서 400여 명의 어르신과 가족, 지역 주민이 함께한 가운데 '제12회 청춘제'가 따뜻한 분위기 속에 성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최경식 남원시장과 김영태 남원시의회의장을 비롯한 내빈이 참석해 1년 동안 배움과 열정을 바탕으로 무대를 준비해 온 어르신들의 노력에 감사와 축하를 전했다.

청춘제는 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예술·건강·취미 프로그램의 연간 활동 결과를 지역사회와 나누는 대표 행사로, 공연 발표회와 작품 전시, 먹거리·체험 부스가 어우러진 종합 문화 축제로,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공연과 작품은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활기찬 노년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행사는 1부 '춘향실버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시작으로 청춘제조, 짐볼난타, 한국무용 등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졌고, 2층 로비에서는 캘리그래피·서

예·미술 작품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복지관 앞마당에서는 생화차 시음과 팝콘·부침개·닭꼬치·떡볶이 등 먹거리 부스, 양말 목 껍받침 만들기 체험이 운영되며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장진석 노인복지관장은 "어르신들이 1년 동안 쌓아온 열정의 결실이 무대와 전시로 아름답게 피어났으며, 함께 해 주신 모든 어르신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활기찬 노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최경식 시장은 "청춘제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삶의 이야기가 담긴 소중한 자리이다. 오늘 이 무대에서 전해진 따뜻한 감동이 지역사회 곳곳으로 퍼져 나가길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문화·여가·건강 활동을 세심하게 살피고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도민 생명·안전 강화

남원소방서 구급팀(팀장 최승범)은 신속·정확한 응급의료 상담을 제공하는 구급상황 관리센터에서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황관리센터는 119로 신고 시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휴일·야간에 운영 중인 병원·약국 정보 제공 △심폐소생술·기도폐쇄 응급처치법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남원은 농촌, 산악지역이 많아 구급대 도착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상담사의 응급처치 지도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 관리센터가 골든타임 확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운봉향교 제23회 기로연 행사 진행

남원시 운봉읍 운봉향교는 최근, 충효관에서 제23회 기로연(耆老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운봉향교 유림과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리고, 세대 간 화합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에는 운봉향교 유림과 함께 이은주 운봉읍장, 읍 기관·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해 어르신들을 축하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행사는 문묘향배, 초대용 악력 소개, 진하의, 진작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어



르신들은 다과를 나누며 서로 답소를 나누고 짧은 세대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전 직원 대상 친절 역량강화 교육 가저

남원시는 지난달 28일 오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그맨 안상태와 함께하는 '친절 UP! 공감&토크 콘서트' 형식 '친절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형식적인 응대가 아닌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친절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직원들이 부담 없이 친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원 대응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 △공직사회 친절의 의미 공유 △개그 콘서트 결합 토크 △민원응대 상황극 및 현장 소통 등 생생한 프로그램을 통해 웃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감과 배려의 친절을 체득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특히 실제 민원 대응 경험과 연결된 에피소드 공유를 통해,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각과 행동에 유연함을 갖는 친절의 태도가 공식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 함께 공감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벼 정부 보급금 신청 접수

임실군이 지역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벼 생산을 위해 국립종자원에서 공급하는 2025년산 벼 정부 보급금 신청을 시작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정부 보급금 공급은 농업 현장의 종자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적 품종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 추진된다.

올해 임실군에 공급되는 벼 보급종 품종은 신통진, 참통진, 동진갈, 해담, 해품 등 5품종으로, 보급 예정 물량은 약 74톤이다.

해당 품종들은 지역 재배 환경에 적합한 품종으로, 농업인들에게 품종별 특성을 고려한 재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종자 신청은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 1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2026년 2월 2일부터는 잔여 물량에 한해 개별 신청이 가능하며, 재고 소진 시 종료된다.

임실군 내 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이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임실=전충영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경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은 남아 놓았는데, 여덟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제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에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